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3.14(금) ~ 2025.3.20(목)

제공일시 2025 3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3.14(금) ~ 2025.3.20(목)

제공일시 2025 3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EU, 철강·금속 액션 플랜 초안 발표 예정... 청정산업딜 핵심 축

- 유럽연합(EU)이 역대 철강·금속 산업 보호 정책을 본격화함. 17일(현지시각) 유럽 현지 매체 유렉티브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철강·금속 산업 행동 계획(Steel and Metal Action Plan)' 초안에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편, 무역 보호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함
- 이번 조치는 EU가 추진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의 핵심 축으로 중국,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함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요금 감면 및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3.19\)](#)

2. 美 환경청, 31개 환경규제 철폐로 “수조 달러 비용 절감” 선언

-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석탄 화력 발전소 오염 규제와 기후변화 정책, 전기차 의무화 등 바이든 전 행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을 전면 철폐한다고 발표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EPA가 '그린 뉴딜'을 끝내다'라는 제목의 리 젤딘 EPA 청장 기고문을 게재하며, 젤딘 청장이 31가지 환경 규제 철폐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함
- EPA가 발표한 31가지 조치 중 주요 내용은 △불법적이라고 규정한 청정 전력 계획 2.0 재검토 △수은 및 대기 독성 물질 표준 재고 △미립자 물질 2.5 수준 규제 완화 △전기차 의무화 정책 종료 △석유 및 가스 생산 제한 규제 철폐 △석탄 화력 발전소 규제 완화 등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3.13\)](#)

3. 中, 첨단배터리 기술 수출규제 강화

- 중국이 전기차(EV) 배터리와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함. 기존에 중국은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산 기술까지 규제망을 넓히는 것임
- 미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독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됨
-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EV에 사용되는 양극재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갈륨 생산 기술에 대해 해외 반출 시 상무부 허가 취득을 의무화함. 이 신문은 “지난 2월 공청회를 마친 만큼 곧 공식 규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매일경제 2025.3.18\)](#)

국내 정책

1. 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 개시

-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함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
-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함
-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밸류체인) 단위로도 지원을 함

[\(가스신문 2025.3.18\)](#)

2. 중기부·동반위, 수출기업 공급망 ESG 대응체계 구축... 대·중소기업 공동 활동 지원

-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ESG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이 해외수출을 하거나 외국기업과 거래 시 요구되는 ESG 지표, 온실가스 산정 등 ESG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ESG경영 전반의 과제를 발굴, 지원할 계획임
- 먼저,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 해외 수출 규제 등 ESG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ESG 활동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줌
-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 중임. 금년부터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의 단순 역량컨설팅을 탈피해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편됨

[\(매일일보 2025.3.14\)](#)

3. 기업이 겪는 고용관련 고충, 정부가 경청한다...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가동

-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6단체가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함
-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9일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제1차 정례 회의를 열고 경제6단체 관계자들과 핫라인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함
- 경제6단체는 이 핫라인을 통해 회원사의 고용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임
- 참석자들은 매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는 일자리점검반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해 발표하기로 합의함

[\(뉴데일리경제 2025.3.19\)](#)

글로벌 기업

1. 셰브론,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사업 본격화

- 미국 메이저 정유사 셰브론(Chevron)이 천연가스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개발할 예정임. 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 셰브론 마이크 워스 CEO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라위크(CERAWeek)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함
- 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셰브론은 데이터센터 인근에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천연가스를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3.18\)](#)

2. 아마존·구글·메타,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지지... AI 시대의 에너지 해법

- 세계 최대 기술기업들이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섬
-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메타(Meta)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CERAWeek 2025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세계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최소 3배 확대하는 국제적 움직임을 지지하는 서명(Large Energy Users Pledge)에 참여함.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이에 가세하며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짐

[\(투데이에너지 2025.3.13\)](#)

3. '테슬라·벤츠보다 빠르다'... 中 전기차, 승부수 던졌다

- 중국 BYD가 내연기관 차량 주유 시간만큼 빠르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와 충전시설을 출시함
- 18일 블룸버그통신과 BYD 웨이보 등에 따르면, 왕찬푸 BYD 회장은 전날 중국 선전 본사에서 개최한 발표회에서 5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슈퍼 e-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힘
- BYD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양산 승용차에 1000V 고전압과 1000kW 충전 전력을 제공한다고 밝힘

[\(한국경제 2025.3.18\)](#)

4. 베트남 전기차업체 빈패스트, 인도네시아에 10만 개 충전소 설치 계획

-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VinFast)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최대 1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빈패스트 경영진 간 회동 직후 발표된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포함됨

[\(임팩트온 2025.3.13\)](#)

국내 기업

1. 포스코인터, 美 최대 희토류 기업과 '구동모터코아 핵심' 영구자석 북미 공급망 구축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최대 희토류 기업과 손잡고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코아 핵심 소재인 영구자석의 북미 공급망을 구축함
-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구동모터코아 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퓨얼스는 17일(현지시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 납품 관련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샘플 테스트를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연간 3만 대 이상의 전기차용 구동모터코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NdPr 산화물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할 예정임

[\(더구루 2025.3.18\)](#)

2. 두산밥캣,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팩' 사업 손잡아

- 두산밥캣은 LG에너지솔루션과 '소형 건설장비 배터리 팩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힘
-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소형 건설장비용 표준화 리튬 배터리 팩과 솔루션을 개발해 북미 등 주요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셀 또는 모듈을 제공함. 두산밥캣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을 패키징해 소형 건설장비에 최적화된 배터리 팩을 공동 개발함

[\(FETV 2025.3.19\)](#)

3. SK온, 닛산과 전기차 100만대분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 SK온이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함
- SK온은 19일 닛산과의 계약에 따라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총 6년간 99.4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밝힘. 공급되는 배터리는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셀로, 생산은 북미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임

[\(코리아타임즈 2025.3.19\)](#)

4. 효성중공업, '테슬라 참여' 英 배터리 저장 시설에 최첨단 변압기 공급

- 효성중공업이 영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첨단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함
- 19일 영국 배터리 저장 솔루션 회사 '제노베(Zenobē)'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제노베가 스코틀랜드 에클스(Eccles)에서 추진하는 400MW(800MWh) 규모의 ESS 프로젝트에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함.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알려지지 않음

[\(더구루 2025.3.1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3.14(금) ~ 2025.3.20(목)

제공일시 2025 3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국 에너지부, 홀텍의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에 5700만달러 지급

-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미시간주에 있는 팰리세이즈(Palisades)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위한 최대 15억2000만달러(약 2조2119억원) 조건부 대출 보증 중 5700만달러(약 829억원)를 지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이 조건부 대출 보증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에너지를 지원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음

-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는 2024년 9월 에너지부 산하 대출프로그램사무소(LPO)를 통해 대출 보증을 확정받았음. 해당 발전소에 대한 첫 지출금 3800만달러(약 553억원)는 지난 1월에 지급됐음

- 2022년 6월 에너지 기업인 엔터지(Entergy)로부터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를 인수한 홀텍(Holtec)은 2025년 말까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 승인에 따라 가동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홀텍은 NRC가 8월까지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폐쇄한 미국 상업용 원자로 사상 첫 재가동이 될 전망이다

-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조치는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안보 강화, 국민 비용 절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다”라고 밝혔음

-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홀텍의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 대출 보증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재평가하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임. 실제로 1월 말,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모든 연방의 보조금, 대출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음

- 이로 인해 에너지부가 이미 승인한 500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대출과 검토 과정에 있는 2800억달러(약 407조원)의 대출 신청 자금이 지급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었음

- 그러나 에너지부는 예상과 달리 홀텍 프로젝트에 대한 두 번째 지급을 승인했음. 이유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미시간에서 최대 600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많은 일자리는 이전에 공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전 최종 보고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 대출프로그램사무소가 4년 동안 총 1075억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53건의 거래를 확정했다고 보고했음. 여기에는 마감된 대출 606억달러(약 88조원)와 28건의 활성 조건부 공약에 대한 469억달러(약 68조원)가 포함되어 있음. 대부분 첨단 원자력, 송전망 현대화, 에너지 저장 및 국내 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함

-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부의 조건부 약정에 대해 조건이 충족되면 자금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다른 조건부 대출들의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됨

[\(임팩트온 2025.3.19\)](#)